

# 특수교육 개편



# 목차

인사말	4
개요 및 자문 위원회 구성	6
역사적 배경	10
자문 위원회 활동으로 발견한 사실	13
결론	32
부록	34

# 인사말



# Christina Foti 국장의 인사말

제가 이번 개편 작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영광과 특별한 경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발전의 정신 염두에 두고 제작된 이 리포트는 밴크스 교육감의 요청에 답을 제시하며 우리 특수교육 자문 위원회에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바친 학생, 학부모, 옹호자들 및 교육자들이 보여준 헌신의 증거입니다. 이 리포트는 저마다 개인사를 공유하고 비평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학생들을 위해 가능한 것을 강력히 추진하게 만든 모든 이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우리 뉴욕시 및 뉴욕시 공립학교가 모든 학생과 가정의 정당한 참여를 존중하기 위한 필수 단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견수렴 및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수백 명 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이 의견들은 이번 개편작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협력관계만이 우리가 나아갈 유일한 방향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의 미래 이니셔티브의 동력이 될 것이며, 그 결과 더 많은 학생들이 성취를 위해 받아 마땅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 관리 및 세션 진행을 도와준 저희 협력기관인 콜롬비아 대학 공공리서치 및 리더십 센터(Center for Public Research and Leadership: CPRL)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밴크스 교육감께서 우리 위원회에 걸고 있던 희망과 비전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지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특수교육 담당실에도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 전역의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핵심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주신 Carolyn Quintana 학습담당 부교육감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협업과 업무를 고대합니다.

## Christina Foti

특수교육 국장

특수 학습 및 학생 지원부(Division of Specialized Instruction and Student Support)

# 개요 및 자문 위원회 구성

# 개요 및 자문 위원회 구성

2022년 12월 1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뉴욕시 특수교육 개편을 위한 특수교육 자문 위원회 결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문 위원회의 목표는 (1) 뉴욕시 특수교육의 장기적인 비전 설정에 도움을 주고, (2) 학생과 가족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3) 특수교육 개선을 위한 추천내용을 작성하고, (4)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7일, 뉴욕시공립학교는 외부 관계자 및 현장 담당자 등 다양한 집단의 관계자들을 모아 자문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위원들이 갖춰야 할 자질을 포함한 몇 가지 원칙 하에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학부모, 커뮤니티 구성원들 및 리더들, 학생들, 교육자들, 옹호자들, 학교리더들 및 기타 특수교육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혼합된 관점을 수용
- 광범위한 전문적 식견 및 경험
- 다양한 장애를 대변
- 뉴욕시공립학교가 관할하는 여러 커뮤니티, 즉,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및 지역을 대표

총 52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포커스 영역의 4개 하부위원회로 나뉩니다:<sup>1</sup>

- **확대 및 지속:** 개별교육계획(IEP<sup>2</sup>)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시키는 것
- **절차 및 정책:** 공정 절차 불만제기 필요를 감소시키고<sup>3</sup> 학생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절차와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 개발
- **참여 및 역량강화:** 장애학생 및 가족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고 유지하는 것. 기존 서비스 홍보, 전반적인 관계자들의 참여를 지원
- **통합 및 독립:** 학생들의 독립을 진흥하는 통합적 기회 접근 방법을 개선

이 4개 하부위원회가 설정한 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2023년 2월에서 6월까지, 콜롬비아 대학 공공리서치 및 리더십 센터(Center for Public Research and Leadership: CPRL)에서는 각 분야 자문 및 뉴욕시공립학교 대표들이 참여한 24 차례의 온라인 회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 회의들은 복잡한 주제를 깊이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업무 시간부터 사전에 계획된 하부위원회 회의, 그리고 정식 자문 위원회 세션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공식 자문 위원회는 격월로 만났고, 하부위원회는— 업무 시간 세션 포함—자문 위원회의 격월 회의 사이에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하부위원회 합동 회의를 소집하여 각기 다른 하부위원회 소속 자문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CPRL에서는 자문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진행 테크닉을 활용하였습니다. 각 회의에서는 뉴욕시공립학교 대표들이 토의 주제에 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Zoom 채팅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피드백은 이메일과 Jamboard를 사용하여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선정된 주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CPRL과 뉴욕시공립학교에서는 자문, 현장 전문가, 커뮤니티 리더 및 옹호자들을 초청하여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문 위원회, 하부위원회 및 포커스 그룹 회의에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리포트가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위원회, 하부위원회 회의 및 오피스 시간 프레젠테이션들은 뉴욕시공립학교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23 특수교육 자문 위원회 위원 명단

**Melinda Andra**

교육법 태스크포스 대표

**Lucy Antoine**

학부모

**Shirley Aubin**

FLHS, QHS, CPAC & L4L 학부모 리더, BPTC 청소년 부 코디네이터

**Dr. Sanayi Beckles-Canton**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공동 회장

**Dina Benanti**

특수교육 7(20, 21 및 31학군) 위원회 위원장

**Georgia Giannikouris Brandeis**

Townsend Harris High School 교감

**Joann Cummings**

회장 위원회 29학군 회장 및 CEC 29 IEP 학부모 위원

**Christina Curry**

시장 직속 장애인 담당실 커미셔너

**Marjorie Dienstag**

교육 정책 패널, 학부모

**Victor Edwards**

뉴욕시공립학교 동문

**Beth Eisgrau-Heller**

학부모, 853 옹호자

**Lorraine Emerson**

학부모

**Laura Espinoza**

학부모

**Stacey Gauthier**

Renaissance Charter School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및 학교장,  
Renaissance Charter School 2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MaryJo Ginese**

전미 교사 연맹 특수교육 부회장

**Celia Green**

뉴욕시 75학군 위원회 공동 회장, 전 교육감 직속 학부모 자문 위원회 대표, 학부모

**Paullette Healy**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공동 위원장

**Kyeatta Hendricks**

뉴욕시공립학교 특수교사

**Lupe Hernandez**

Public Advocate Jumaane D. Williams 오피스 소속

**Rima Izquierdo**

제 75, 8, 11학군 학부모 리더, Bronx High School 회장 위원회 위원장, Bronx 발달장애 위원회 집행위원회 학부모 위원

**Ahjaah Jewett**

뉴욕시공립학교 동문

**Rita Joseph**

뉴욕시 의회 교육위원회 의장

**Melissa Katz**

뉴욕시 차터 스쿨 센터 대표

**Lauren Kish**

09X042 학교장

**Nelson Mar**

Legal Services NYC 변호사

**Kin Mark, MS, PD**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부위원장, Brooklyn 대표

**Ellen Mc Hugh**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Public Advocate 지명자

**Maggie Moroff**

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 특수교육 정책 시니어 코디네이터

**Erika Newsome**

특수교육 학부모 옹호자

**Kristie Patten**

위원장 자문, NYU 작업치료 교수

**Lori Podvesker**

INCLUDEnyc 장애 및 교육 정책 디렉터

**Smita Prakash**

뉴욕시공립학교 작업 치료사

**Glennys Rivera**

DC 37 로컬 372 제 2 부회장





**Desines Rodriguez**  
32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위원장

**Claudine Cyrius Saint Victor**  
학부모

**Marisela Sánchez**  
제 75 학군 교사

**Harry Sherman**  
제 9학군 수퍼인텐던트

**Rosemarie Sinclair**  
학교 슈퍼바이저 및 행정가 위원회 이그제큐티브 부회장

**Josh Stern**  
뉴욕시공립학교 동문

**Christopher Suriano**  
뉴욕주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 부 커미셔너

**Amy Tsai**  
뉴욕시 75학군 위원회 공동 위원장, 학부모

**Whitney Toussaint**  
커뮤니티 30 교육 위원회 대표

**Chris Treiber**  
Children's Services 부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InterAgenc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gencies

**Barbara Tremblay**  
75K721 학교장

**Dr. Hoa Tu**  
Queens North High Schools 수퍼인텐던트

**Dr. Marion Wilson**  
31학군 수퍼인텐던트

**Effi Zakry**  
교육 정책 패널, 학부모, 전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 부위원장

뉴욕시공립학교 학생들 및 동문

저희 자문 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신 특수교육 담당실의 다음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Shona Gibson, John Hammer, Rebecca Lechuck, Michelle Netzler, Kim Ramones, Rachel Rippey-cheun, Susanne Sanchez, Jessica Wallenstein

# 역사적 배경

# 역사적 배경

뉴욕시에서 특수교육 개선이나 개편 시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5년,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New York University에 “Focus on Learning” 리포트를 의뢰하여, 각 학군 별 특수교육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을 위한 명확한 추천사항을 도출해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일반교육 교사들이 이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리소스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연수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 리포트는 지적하였습니다.<sup>4</sup>

그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 리포트에서는 일반교육을 강화하고 일단 적절한 지원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분류해제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교실을 재구성할 학교기반 모델 시행, 새로운 방식의 인력 파견, 수업과 평가의 개념 재정립 및 예산 배분 변화
2. 수업 지원팀(Instructional Support Team: IST)을 결성하여 학급 교사들이 수업 중 겪는 특정 문제나 학생의 행동 문제에 비공식적이고 신속한 중재를 제공
3. 특수교육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학생들(중증 장애 학생은 제외)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표준화 시험 점수를 그들의 소속 학교 시험점수 집계 결과에 통합
4. 독립적인 책임 및 퀄리티 보장 담당실(Accountability and Quality Assurance Office: AQAO)을 신설하여, 각 학군과 학교들의 학교 기반 모델 시행 노력을 평가하고, 학교생활 실패 위기에 처한 학생들 및 장애학생들에게 끼치는 결과를 검토. AQAO은 모든 학군과 고등학교 및 제 75학군 위원회에서 학군 차원의 학부모 옹호팀을 모집, 설립, 훈련, 감독, 지원<sup>5</sup>
5. 고등학교 특수교육 수퍼인텐던트 직책 신설
6. 주 지원금 분배 메커니즘에 대대적 변화.



2001년,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연합(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Coalition)에서<sup>6</sup>1995년 이후의 진척, 특히 뉴욕시공립학교들이 장애인 교육법(IDEA) 상의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LRE) 요건을 얼마나 잘 준수하였는지 검토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아동 옹호 그룹과 법률 서비스 기관 등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이 리포트는 장애학생의 일반교육 환경 통합 통계를 상세히 보고하면서, 검토 시기(1997-2001)동안, 50%가 넘는 뉴욕시공립학교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IEP 학생들만 지도하는 소규모 학급)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분리된 시설에서 60%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통계인 24.54% 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유아원생의 경우 이 수치는 약간 더 높았습니다: 뉴욕주 전체로 볼 때, 통합 환경에서 교육받는 유아원생의 백분율은 1995-96 학년도의 32.3% 에서 1999-2000학년도에는 55.5%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이듬해인 2001년 9월, 특수교육 서비스 연속성(Continuum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의 신규 시행 시점과 맞물려 공개되었습니다.<sup>7</sup>

2012년, 뉴욕시공립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최대한 본인의 학교 학교에서 교육시키는데 중점을 둔, 성공으로 함께 가는 길(Shared Path to Success) 이니셔티브<sup>8</sup>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공립학교들은 피드백 세션 내내 학교장, 학교 심리상담사 및 가족들로 구성된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IEP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1. 수준 높은 교과과정으로 교육받고, 높은 학업 기준을 성취하도록 기대되며, 자신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독립적인 생활, 대학과 구직 준비를 갖추고 졸업하도록 지도
2. 학업적으로 적절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자주,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교육
3.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학년도 전반에 걸쳐 적절한 레벨의 지원을 받도록 함
4. 본인의 존스쿨이나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sup>9</sup>

2023 특수교육 자문 위원회 활동 및 추천내용은 뉴욕시 특수교육 개편을 위한 이전의 노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문 위원회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수퍼인텐던트 및 차터 스쿨 대표 등 다양한 집단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추천사항에서는 특수교육 자체 문제를 직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특히 이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게 실용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추천사항은 통합적이고 반 장애인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 대표들은 참여절차 전반에 걸쳐 쌍방향 대화에 참여하고 자문들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응답하였으며, 진행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및 개편노력의 결과로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으며 과거 몇 가지 추천사항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특수교육 개편 진행 과정에서 자문 위원회 피드백을 참고하여 과거의 노력들이 고질적인 문제에 어떤 효과를 보였으며, 앞으로 어떤 작업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자문 위원회 활동에서 발견한 사실

# 자문 위원회 활동에서 발견한 사실

4개 하부위원회 및 전체 자문 위원회 회의에서, 자문들은 하부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에 관한 추천사항의 근간이 되는 몇 가지 특정 주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자문 위원회 피드백에 대응하여 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서 발췌한 주요 내용입니다:

## 1

뉴욕시공립학교는 반드시 완전하게 통합적이며 독립적인 의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통합은 부수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학습과 발달 지원을 받아야 함을 뜻합니다. 통합은 학교 커뮤니티에 다양성과 독립성, 평등, 그리고 소속감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반드시 우수한 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명확하고 보편적인 표준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표준은 직원 대상 수준 높은 연수와 전문성 학습, 강력한 협력 활동, 의미 있는 가정-학교-커뮤니티 연계,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기대를 설정하여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등에 기반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반드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책임 구조를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 표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넘어 그 이상의 성취를 해낸 학교들을 파악하고 격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2

뉴욕시공립학교는 반드시 일반교육 개편을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특수교육은 일반교육 커리큘럼이나 학습지도의 일반적인 전략을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자구책 역할만을 해 왔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 일반교육 교실은 반드시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들은 특수 수업과 맞춤형 지원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일반교육 교실은 이러한 요구가 일반교육의 문맥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디서든 적용 가능하게 하여, IEP 학생들이 가능한 자주 일반교육 교실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강화된 커리큘럼 옵션, 증거 기반의 지도방식을 중점으로 개선된 교사 학습지도, 그리고 다단계 필수 지원 시스템 및 중재구조에 대한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반교육 교실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지원 및 수업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리포트에 사용된 언어는 직접 경험한 자문위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매우 신중하게 선정되고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본 리포트에서 자체를 언급하는데 사용된 언어는, 이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들이 정체성 우선 언어(역사적으로 최선이라고 여겨졌던 “사람 우선” 대신)를 선호하였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하였습니다. 저희는 개인과 공동체는 각기 다른 언어를 선호할 수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그런 저희가 사용해 온 언어는 이러한 선호도의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모든 이를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 3

학교와 가정간의 신뢰 강화. 신뢰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협력 및 학습의 근간이 됩니다. 많은 IEP 회의들이 이미 협력적이고 성공적이거나, 학부모들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일은 매우 흔하며, 이러한 경험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학생 및 부모와의 신뢰를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a. 학부모의 관점을 적극 이끌어 내는 협력적인 IEP 회의에 대한 기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IEP팀은 반드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일치와 아동을 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공정 절차에만 의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b.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IEP 절차에서 부모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학교 차원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학부모가 학부모를 위해 나서는 “커뮤니티에 의한, 커뮤니티를 위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공익 옹호(public advocate)”모델 활용, 그리고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모든 옵션을 알고 있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4

통합을 도모하고 학생으로부터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며, 학생 집에서 가까운 공립학교 프로그램 투자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준 높은 학습 기회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배경, 지역 또는 필요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 대한 동등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75학군은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배정일 수 있으나, 이것을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만 추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시공립학교들은 반드시 뉴욕시 특수교육 서비스의 연속성(New York City Continuum of Special Education Services)에 특수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부모와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여 학부모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지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뉴욕시공립학교는 대중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여 해당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신설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모두 수용할 만큼 충분하게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만 합니다. 또한 새로운 IEP 지원 구조(가령, 새로운 학부모

옹호 프로그램)를 만들어 이러한 프로그램 옵션을 고려하는 가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위치는 가능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프로그램 유형 역시 학생들의 필요 분석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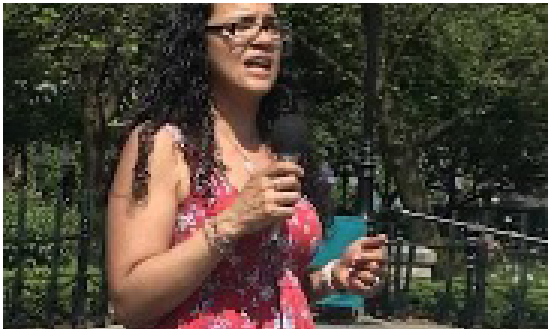
의식의 변화, 조직 차원의 반 장애인 차별문화 조성, 경험자들의 관점을 수용. 미국 장애인 권리의 핵심 주제는 “우리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입니다. 반 장애인 차별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모든 관계자들의 집합적 의무로서, 장애인을 무시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또한 장애물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위원들은 교직원, 가족, 학생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및 전문성 학습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누구나 환영하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들은 프로그램,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에 학생과 부모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며, 뉴욕시공립학교가 사용하는 모든 표현이 포용적이며, 장애학생과 가족에게 끼치는 영향과 관심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하부위원회 회의에 대두된 특정 주제에 관하여 뉴욕시공립학교를 위한 피드백과 추천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하부위원회 활동은 아래 안내된 드라이버 도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드라이버 도표란 다양한 “드라이버”, 즉, 자문 위원회의 전반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드라이버 도표는 자문 위원회의 전반적인 목표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1차 드라이버들, 그리고 1차 드라이버들의 구성요소인 2차 드라이버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섹션들은 하부위원회 토의내용 및 자문 위원회 추천사항입니다.

발견점		
장기 목표	1차 드라이버	2차 드라이버
<p>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p>	<p><b>통합 및 독립:</b>                      학습지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체계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 가정과 학교에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75학군과 나머지 시스템 전반 간의 간격 제거</li> <li>2. 장애 및 특수교육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li> </ol>
	<p><b>평가 및 지속</b>                      각종 자원은 효율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모델을 위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학생들의 IEP가 완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모든 학교에서 수준 높은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편 표준 수립</li> <li>4. 관련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선하여 자원의 전략적 분배 및 IEP준수 보장</li> <li>5. 더 많은 학교에서 효율적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li> <li>6. 적용 및 배정 정책을 통해 효율적 프로그램에 더욱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li> </ol>
	<p><b>절차 및 정책</b>                      학생과 가족을 위해 평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돕는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IEP 회의가 좀 더 협력적이고 학생의 필요에 잘 맞는 IEP를 도출할 수 있게 보장</li> <li>8. 공정 절차 불만 제기 과정 시작 전, 그리고 절차 중 가정을 위한 지원 제공</li> </ol>
	<p><b>참여 및 역량강화</b>                      IEP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하여 가정에서 잘 알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 학생과 가정을 위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환경 조성</li> <li>10.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각 가정에 더욱 많은 정보 제공</li> </ol>



## 인터뷰 하이라이트



“[이 자문 위원회의 활동은] 의사결정을 위한 템플릿, [그리고] 시행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 Rima Izquierdo

75학군, 8학군, 11학군 학부모 리더  
브롱스 고등학교 회장 위원회 위원장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 통합 및 독립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의 주된 목표는 뉴욕시공립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일관성있는 학습지도(일원화된 행정 구조 및 가정과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제공 등으로 뒷받침된)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는 학부모, 옹호자 및 뉴욕시공립학교 동문, 교사 및 행정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부위원회가 처음 중점을 둔 사안은 75학군과 나머지 학교 시스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의도로 75학군의 행정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뉴욕시공립학교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최초의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의 피드백에 근거하여 뉴욕시공립학교는 시한을 조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계획을 재구성하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계획되었던 변경내용을 재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에 추가하여, 하부위원회에서는 학군 보호 번호(DBN), 기관에 배정(예, 의료기관이나 병원 배정)되었다가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한 전환 절차, 75학군의 정체성 및 75학군 서비스 재정비에 관계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 등, 몇 가지 주제를 더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토론을 통하여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의 학부모, 교육자, 학생으로서 본인이 겪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였으며, 진정으로 통합되고 독립적인 시스템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통합 및 독립		
장기 목표	1차 드라이버	2차 드라이버
<p>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p>	<p>학습지도는 일관성있어야 하고, 행정체계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 가정과 학교에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5학군과 나머지 시스템 전반 간의 간격 제거</li> <li>장애 및 특수교육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li> </ul>

### 75학군과 나머지 시스템 전반 사이의 간극 제거

75학군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시스템 내 별개의 시스템으로서, 기타 뉴욕시 유사 부서와 평행적으로, 그러나 별개의 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배정, 안전, 홀스쿨링 및 통합 팀 등은 모두 다른 학군에도 있는 유사 부서들의 예입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 위원회 활동 이전부터 관계자들로부터 그리고 위원회 활동 이후에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책임소재가 분산되고 가족들에게 일관성이 결여된 시행 및 경험을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통합 및 독립 자문위원들로부터 제안사항을 받아 각종 자원과 팀들을 재정비하여 75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고 75학군 가정 및 75학군으로 전입하거나 1-32 학군 학교 또는 79학군으로 나가는 가정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사항에는 몇 가지 행정상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시행할 타임라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에서는 또한 이러한 제안사항의 이행이 75학군 지원이나 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 시스템에 소속된 모든 장애학생들의 통합을 강력히 지원하고, 75학군을 더 광범위한 학교 시스템으로 흡수하는 의견을 선호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1-32학군 학교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행정상의 변화는 예산 감소 및 자원 분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계획과는 달리 장애 학생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 75학군 팀들이 흡수될 부서들이 75학군의 본래 팀들만큼 효율적이지 못하여 특수 프로그램 등록, 전환 계획 및 통합 “사막” 등과 같은 기존의 문제들이 잔존할 수 있다는 점
- 지원 테크놀로지 및 응용 체육 등, 성공적으로 시행되던 75학군 프로그램들이 재통합될 경우 질적인 면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점

자문위원들은 또한 75학군 학생들을 더 큰 공립학교 커뮤니티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들이 학생 통합 및 협력 우수사례를 본받아 이행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공립학교들은 학교들이 캠퍼스를 공유하면서 아이디어와 테크닉도 함께 공유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린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학교를 초청하여 학군 차원의 연수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들은 그들의 건물을 주인과 손님의 관점이 아니라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보고 있다고 자문위원들은 지적하였습니다.

### 인터뷰 하이라이트



“저는 75학군에서 졸업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효과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즉, 통합 캠페인이 어떤 점에 주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 관점을 알려주고 싶었죠,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을 경우, [IEP가 없는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시간표나 성적을 받지 못했어요. 저희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해 투쟁해야 했죠.”

– Ahjaah Jewett

뉴욕시공립학교 이전 학생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 장애 및 특수교육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

학부모, 교사 및 동문 자문위원들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결정을 내릴 때, 정작 본인들의 의견과 목표, 필요한 편의 등이 고려되지 않았던 불편한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학, 통합, 안전 문제 및 졸업 경로 등에 관하여 자문위원들이 공유한 사례들입니다.

몇몇 자문위원들은 뒤엎긴 통학 경로, 냉방이 되지 않던 스쿨버스, 제멋대로인 도착 및 출발시간,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및 형제자매와 함께 승차할 수 없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제 아이는 Nest<sup>10</sup>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 그 아이는 통학 버스 때문에 매일 지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를 형벌이라고 느꼈어요. 늦게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벌받는 느낌이었죠.”** -자문위원

또 다른 자문위원은 일반교육 교사가 “특수교육 학생 수업에 사인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을 말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단순히 커리큘럼만 전달하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 커리큘럼이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대신 말이죠. 그건 매우 다른 자세죠.”** -자문위원

## 이론을 실천으로 만들기

### P.S. 463에서의 통합 시행



**“저희는 청각장애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청각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증폭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저희 공동교사들은 마이크를 사서 그 학생 교실에 있는 모든 책상에 놓아줬어요. 그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토론 시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했죠. 이것이 학급 전체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필요로 했던 학생이 누구인지... 그 교실의 어떤 아이들도 알지 못했어요. 이런 환경이 그 아동이 학급에 통합되었다고 느끼게 만든 방법이었죠.”**

**- Kyeatta Hendricks**

K-12 뉴욕시공립학교 특수교사

또한 자문위원들은 안전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1-32학군 학교에서 75학군 통합 제공자들로부터 특수교육 교사지원 서비스를 받는 75학군 학교들은 매일 함께 공부하는 또래들과는 다른 DBN을<sup>11</sup> 부여 받았습니다. 학부모 리더인 한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안전 회의에서 계속 배제되었어요 ... 왜냐면 우리 학교는 독립된 DBN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안전 회의에 학부모 대표가 참석할 수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직원들도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75학군 학생들은 ID에 DBN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 캠퍼스의 여러 건물들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많죠. 우리 학생들이 그 빌딩에 출입한 기록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문위원**

뉴욕시공립학교 동문 중 한 명은 졸업장 취득을 위한 졸업 경로로 전환하는데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는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IEP 재평가가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목표 및 추천사항을 받아 졸업장 취득 경로를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취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합 및 독립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학부모 리더들과 노조들이 제시한 표준을 정립하여 75학군 학생들의 결과 및 웰빙에 책임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모든 학교에서 두 도시 이야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및 독립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기관이나 병원에 배정되었다가 혹은 홈스쿨링을 하다가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뉴욕시공립학교들이 “[뉴욕시공립학교로의] 복귀에 무엇이 필요할지” 좀 더 고민하고, 전송기관(예, 병원, 교정시설 등)들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기관에 배정되었거나 가정 및 병원 교육을 받던 학생들의 경우, 자매 학교들은 학생 가정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학생에게 “유사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학생이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확대 및 지속

확대 및 지속 하부위원회의 주된 목표는 뉴욕시공립학교가 어떻게 하면 자원을 더욱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하부위원회는 학부모, 이전 및 현재 학생들, 학교 행정가, 옹호기관 멤버들, 정부 관리들 및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하부위원회는 자체적 모임뿐만 아니라 절차 및 정책 하부위원회와 합동 회의도 개최하여 특수 프로그램 적용 및 재정 정책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확대 및 지속팀은 현장 전문가들(교육자 및 고등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수준 높은 통합 프로그램을 위한 보편적 표준에 대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 인터뷰 하이라이트



**“저희는 학교 리더들과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학습장애를 임상적으로 더욱 잘 알고 장애의 과학을 이해하도록 했죠. 저희는 교사와 교장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조하고, 뒤쳐지고, 정서적 장애가 있고 [이런 것에서부터] 스펙트럼에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죠. 저는 교사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들도 악의로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생각하죠.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역량이 이것 뿐이고요.**

**- Harry Sherman**

뉴욕시공립학교 9학군 수퍼인텐던트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특수교육

확대 및 지속		
장기 목표	1차 드라이버	2차 드라이버
<p><b>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b></p>	<p>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학교에서 수준 높은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편적 표준 수립</li> <li>관련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선하여 자원의 전략적 분배 및 IEP 준수 보장</li> <li>더 은 학교에서 효율적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li> <li>적용 및 배정 정책을 통해 효율적 프로그램에 더욱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li> </ul>

**모든 학교에서 수준 높은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편적 표준 수립**

자문위원들, 포커스 그룹 멤버들 및 뉴욕시공립학교는 특수 프로그램 및 75 학군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었던 4 개 영역에 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보편적 표준은 학교 및 학급 디자인에 있어 학생들의 학업, 사회 및 정서적 필요를 증점화 하고 통합적 공동체를 양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위원들 및 포커스 그룹 멤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표준 기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이 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아래 차트에 파란색으로 강조)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개선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협력적 시행	가정-학교-커뮤니티 연계	학생들을 위한 높은 기대
<p>대학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교사 및 임상전문가들이 뉴욕시공립학교의 맥락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함</p> <p>모든 빌딩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및 지속적인 전문성 학습 실시</p> <p>직접적인 학급 내 컨설팅 및 코칭</p> <p>학교 일과 내내 학생들의 접근 및 교사 및 훈련받은 직원들로부터의 지원</p>	<p>통합 팀 회의</p> <p>전환 지원</p> <p>학교 건물 관리직원 및 중앙 지원팀과의 정기 월례 회의</p>	<p>가족 및 양육자들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p> <p>특수 프로그램에 신규 배정된 학생 가정 방문</p> <p>지역사회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한 학생 지원</p>	<p>전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 설정</p>

자문위원들은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며, 각 학교들은 이것을 초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가 이 표준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모든 레벨(예, 학군 레벨, 학교 팀, 학급)에서 보편적 요소의 이행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지침 제시
- 보편적 디자인 및 구조화된 읽기쓰기 병합 및 프레임워크와 커리큘럼에 관한 구체적 추천사항 포함
- 지속적 개선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한 모니터 절차 통합
- 오피스 직원부터 청소부, 일반교육 교사부터 학교장까지 건물 내 모든 직원들이 자기 옹호자들 및 경험자들이 제공하는 전문성 개발 연수에 참여
- 장점 위주의 마음가짐, 보편적 디자인, 협력수업 방식, 부모 및 양육자들과의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강점을 기본으로 하는 IEP 해독 등을 전문성 개발 연수에서 다룸.
- “높은 기대” 표준을 기대치 설정 시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환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장애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 안에 더욱 잘 통합되고 포용되도록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학과목 접근에서 통학, 견학 및 특별 활동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들은 편의제공을 받는 것에 대해 “스스로 우스꽝스럽게 느끼”는 대신,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받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선하여 자원의 전략적 분배 및 IEP준수 보장.**

뉴욕시공립학교는 학생들 성취 개선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모델에 초점을 둔 관련 서비스<sup>12</sup> 계획도 검토해줄 것을 자문위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IEP에 관련서비스가 추천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 밖 별도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sup>13</sup>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런 학습 환경,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교실에서 서비스를 받고 연습할 때 새로운 기술을 가장 잘 배우고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sup>14</sup> 뉴욕시공립학교의 관련 서비스 종합계획은 학교 커뮤니티가 학생 성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책임에 대해 공동의 접근법을 통해 학생들의 독립능력을 키운다는 비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1) 통합적 경험 기회를 증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과 지식 증대 및 통합정책 실시, (2) 학생의 독립능력을 키우고 학생 성취 개선을 위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3) 고등학교 이후의 성취 향상을 위한 고등학생 지원 방법에 초점.

자원을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하여, 뉴욕시공립학교 직원은 관련 서비스 제공자 (RSP) 배정 모델 변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현 계획 하에서는 제공자들이 장소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 채용되고 배정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건물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 조항을 관리하기 위해 한 학교에 여러 개의 “책임 센터”들이 생겨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관련서비스 제공을 받는 학생들이 자신의 IEP에 명시된 그룹 규모와는 다른 규모의 그룹에 배정되어, 과도하게 집중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자의 수용력을 초과하여 학생의 IEP에 적힌 연례 목표 달성 기회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인터뷰 하이라이트**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가 가르친 대로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난 배운 대로 했다. 그러나 뭔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더 쉽게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차이를 알았으니 수치스러움 없이, 그리고 존엄을 유지[하며] 우리가 더 잘 하도록 가르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될까요?”

**- Kristie Patten**

회장 자문,  
NYU 작업치료 교수

이 모델과 현재 관습을 개편하기 위하여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위원들에게 RSP가 프로그램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럿 배정 모델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이 통합 캠퍼스 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RSP 케이스로드 효율성
- IEP 추천에 따른 그룹 세션 별 학생 서비스 기회 증가
- RSP 순방 감소
- 여러 장소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 축소 및 서비스 케이스로드 증가
- 제공처 연속성 증가로 인한 IEP 추천사항에 대한 통합적, 포용적 지원 가능
- 학교 관리자 감소 및 연락처의 일원화

자문위원들은 현재의 관련 서비스 제공 모델은 매우 낡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관련서비스를 받기 위해 교실 밖으로 불려나갈 때 수치심과 창피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교실 내에서 통합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론 상으로도 적합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뉴욕시공립학교가 계획을 수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학교들은 가정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서비스 변경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IEP 회의에 오기 전에 이미 팀과 여러 차례 의사를 교환했어야 하며, 회의에 와서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한 자문위원은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준수된다면 가정과 학교 간의 신뢰는 절로 형성될 것입니다.
- RSP는 변화를 앞두고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 전환하는 학년도에는 필수요건의 변경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뉴욕시공립학교들은 필수요건에 변화를 주기 전에 교직원들이 해당 학생을 잘 파악하고 신뢰를 형성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교직원은 “IEP를 살아있는 문서로 취급하고, 유연성을 갖춰야 하며, 언제든지 재고가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야” 하며 또래 에디팅이나 튜터링 등의 창의적 해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교사, 관련서비스 제공자 및 가정 간 협력에 필요한 시간을 정규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 리더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특히 캠퍼스를 공유하는 학교들에서 중요합니다.
- 자문위원들은 제안된 변동사항에 대비하고 훈련받을 대상은 학부모와 가족들만이 아닌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교사, 학교 리더들 및 RSP가 긍정적이고 따뜻한 환경 조성, IEP 회의 개최, 효율적인 IEP 목표 작성, 통합 환경 내 관련 서비스 시행 등에 관한 정기적인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서비스 제공 모델에 어떤 변화를 줄 때는 반드시 시범 사이트에서 먼저 실시해 보되, 이 시범 사이트는 공동 캠퍼스를 사용하는 교장들간에 원활한 협력과 데이터 추적이 잘 되는 곳으로 선정하여 시범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의 삶으로 관련서비스의 초점을 변경하여 학생들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그들에게 의미 있고 확고한 IEP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 더 많은 학교에서 효율적 특수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모든 학교들이 수준 높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표준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관련 서비스 개선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뉴욕시공립학교는 확대 및 지속, 그리고 절차 및 정책 하부위원회에 1-32 학군 내 학교에서 필요에 따른 특수 프로그램으로의 동등한 접근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폐학생의 증가추세를 생각할 때,<sup>15</sup> 이러한 논의는 Nest와 Horizon(이 프로그램들에 관한 설명은 부록 3 참고) 등의 성공적인 자폐 프로그램의 역량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내부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12,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수 자폐 프로그램(부록 4 참고)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또한 공정절차 이의제기 데이터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이의제기의 대다수가 공립학교 시스템에 한 번도 등록한 적 없는 학생 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sup>16</sup> 뉴욕시공립학교는 지금까지 특수 프로그램에의 투자는 학부모의 관심이 특히 높거나 공정절차 이의제기가 많았던 학군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욕시공립학교는 이러한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위원들에게 제시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확장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문위원들은 브롱스와 퀸즈의 몇몇 특정 학군에서 Nest 프로그램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sup>17</sup>

자문위원들은 또한 특정 학습 장애와 같은 기타 유형의 장애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 확장 필요성에 관해 질문하였고, 뉴욕시공립학교가 특수 프로그램을 더 절실하게 이용해야 할 비 자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용에 특히 관심을 쏟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적용 및 배정 정책을 통해 효율적 프로그램에 더욱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자문위원들은 자폐 프로그램 지원 절차를 개편의 초점으로 지목하였습니다. 현재 Nest나 Horizon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IEP 절차 밖 별도의 과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절차는 교사나 가족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서는 자폐 프로그램 매니저가 검토하는데, 이 매니저는 IEP 및 각종 평가와 검사, 그리고 진척 노트 등을 살펴봅니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부모나 양육자, 학급 교사 및 RSP와 면담하고 학생의 학습환경인 교실 관찰 일정을 잡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택할 수 있는 옵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학교 IEP팀도 이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IEP팀이 자폐 프로그램을 자폐 학생들에게 옵션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부모들과 옹호자들로부터 자주 듣곤 하죠.”**

**-자문위원**

자문위원들은 이 특수 자폐 프로그램이 일반 IEP 절차와는 별도의 과정인지 의문을 품었고, 뉴욕시공립학교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 가족 및 직원들에게 Nest 및 Horizon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림. 일부 자문위원들은 학생의 행동 문제 때문에 지원을 저지하고, 지원절차를 힘들게 만드는 학교의 소위 “문지기”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있거나, 이들의 존재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 가족과 직원들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플로우차트를 개발하여, 어떤 특정 학생에 대한 각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함. 이를 위하여 뉴욕시공립학교는 특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웹사이트에 게시된 PDF”가 아닌, 더욱 접근이 쉬운 정보로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 및 정책**

절차 및 정책 하부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뉴욕시공립학교가 학생과 가정을 위해 공평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는 분쟁해결 방식 시행 절차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부위원회 멤버는 학부모, 학교 행정가, 옹호기관 멤버, 변호사 및 정부 관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의 섹션에도 요약되었듯이, 이 하부위원회는 자체적 모임뿐만 아니라 확장 및 지속가능성 하부위원회와 합동 회의도 개최하여 특수 프로그램 적용 및 배정 정책에 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론을 실천으로**

**Townsend Harris High School의 관련 서비스 시행**



**“수업시간은 50분이고, 저희 관련 서비스 세션은 40분[때로는 가정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30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점심을 먹고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하루 일과 중 자유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에 관련 서비스를 받으러 갈 수 있게 하죠. 저희는 절대 수업시간 중에 학생을 빼오지 않아요. 그러면 학생이 뒤처지기 때문이죠.**

**“저희 치료사들은 항상 학생의 현재 학업을 시작 포인트 [특히 언어]로 삼아 교사와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 구글 클래스룸에 접근하거나 어떤 과제가 곧 제출기한이 임박했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어떤 스킬을 연마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우리 교사들은 또한 언어치료사들과 협력하여 언어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관련서비스를 프로그램에 융합할 수 있습니다.”**

**- Georgia Giannikouis Brandeis**

Townsend Harris High School 교감  
확대 및 지속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절차 및 정책		
장기 목표	1차 드라이버	2차 드라이버
<p><b>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니다.</b></p>	<p>학생과 가족을 위해 평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돕는 분쟁 해결 절차</p>	<p>IEP 회의가 좀 더 협력적이고 학생의 필요에 잘 맞는 IEP를 도출할 수 있게 보장</p>

**IEP 회의가 좀 더 협력적이고 학생의 필요에 잘 맞는 IEP를 도출할 수 있게 보장**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위원들에게 성공적인 IEP 회의란 어떤 느낌인지, 성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영역 대처를 위해 떠오르는 혁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문제해결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자문위원 및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정과 학교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학부모들은 평가 리포트에서 자녀의 약점에 초점을 두는 교사와 전문가들로부터, 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IEP 그 자체로부터 종종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 학부모들은 학교팀으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고, 학교팀 멤버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 학부모들은 학교팀 멤버들이 예산, 직원충원, 자원과 촉박한 시간 등 첨예한 이슈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방식 등을 선뜻 추천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 학교팀은 서비스와 학생의 필요 간의 관계를 가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모델을 결정할 때 서로 동의하지 못하곤 합니다.
- 학교에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유연성 있게 시행하지도 못합니다.
- 학교와 가정간에 있었던 이전의 안좋은 경험이 현재 진행 중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인터뷰 하이라이트**



“우리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기도 하고 자녀와 함께 배우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협력과 투명성을 지원하는 환경인 것이죠. 교육자들이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며, 실수나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수용하는 공간을 창조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생의 강점에서부터 출발하되, 그들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 Dr. Sanayi Beckles-Canton**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 및 절차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뉴욕시공립학교는 협력적인 IEP팀 회의 진행 및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기존의 메카니즘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IEP 팀의 학부모 멤버와 학군 대표 모집, 중재, IEP 촉진, 그리고 특수교육 인박스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이 각각의 사항에 대한 장점과 한계에 주목하였습니다.<sup>18</sup>

기존 메카니즘의 한계에 대처하고, 보다 협력적이고 성공적인 IEP 회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비책으로, 뉴욕시공립학교는 혁신을 위한 일련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검토할 아이디어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까?
<p><b>IEP 학부모 멤버 모집, 훈련, 지원에 투자.</b>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P 학부모 멤버 훈련 홍보</li> <li>· IEP 학부모 멤버 보수 지급 옵션 숙고</li> </ul>	<p>뉴욕시공립학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속성을 이해하고 이 시스템 활용방법을 아는 훈련받은 IEP 학부모 멤버가 실시하는 학부모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의 경험 부재 및 고립된 느낌 완화합니다.</li> <li>· 학교팀은 학생의 필요와 리소스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 개발 및 서비스 설명을 책임집니다.</li> </ul>
<p><b>학군 대표 연수 및 지원에 투자</b></p>	<p>단순히 학교팀을 대신하여 활동거나 학부모들에게 모든 옵션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대신, 학군 대표들은 IEP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는 협상가이자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각종 이슈와 이에 대한 설명을 학부모들에게 해야 하며, 강점 위주의 접근법을 활용하고 학부모 요청에 대해 열린 마음과 창의적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p>
<p><b>IEP 회의 후 학부모 만족도 설문</b></p>	<p>IEP 회의 시 경험한 각종 편의 및 보살핌에 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뉴욕시 전체 전문성 학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p>
<p><b>다방면의 공공 캠페인을 통하여 중재 옵션을 홍보</b></p>	<p>학생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와 부모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고취합니다.</p>
<p><b>IEP회의에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뉴욕시공립학교는 회의 말미에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천</b></p>	<p>학군 대표는 의사소통과 의견일치 시도에 실패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학부모에게 공정절차 불만제기 없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p>

더 나아가, 뉴욕시공립학교는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 비 법률가 옹호인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옹호인들은 갈등해결 분야 훈련을 받았고, IEP 회의 및 중재, 그리고 심지어 공정절차 불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본인들이 그간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뉴욕시공립학교 측의 제안에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 학부모, 양육자 및 교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연수를 받고, IEP 회의 중 야기된 문제에 대해 공정절차 불만제기를 하는 대신 중재를 택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함
- 중재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덜 적대적이고 문제의 소지가 적은 갈등 해결 방안임을 학부모와 양육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이 때, 중재의 효율적 시행이 핵심이 됩니다.

- IEP팀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도구와 자원,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여, 무조건 공정절차 불만제기에 의존하려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
- 학생이 다니는 공립학교에서 추천된 중재를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게 지원 제공 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들은 비공립학교의 효율적 프로그래밍 모델을 따라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 IEP 회의가 더욱 협력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각 학교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

## 참여 및 역량강화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뉴욕시공립학교가 어떻게 하면 IEP 학생 부모들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는 학부모, 옹호자 및 뉴욕시공립학교 동문, 현재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여 및 역량강화		
장기 목표 하부위원회 전체 공유	1차 드라이버 참여 및 역량강화	2차 드라이버 참여 및 역량강화
학교들은 가정 안팎과 통합 환경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IEP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하여 가정에서 잘 알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을 위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환경 조성</li> <li>•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가정 및 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li> </ul>

전체 그룹 회의나 하부위원회 및 하부위원회 합동 회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참여 및 역량강화 팀은 몇 개의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며 현재 및 이전 뉴욕시공립학교 IEP학생들의 양육자들, 그리고 현재 및 이전 뉴욕시공립학교 교사 및 기타 직원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정을 위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환경 조성**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을 정책 및 절차에 포함시켜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가족을 위한 환경 개선, 통합 및 독립적 언어 이니셔티브, 학생과 가족을 실질적 협력자로 만들기, 그리고 가족과 학생의 관점에서 배우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Inclusive & Interdependent**  
Language Initiative

**통합 및 독립적 언어 이니셔티브 홍보**

뉴욕시공립학교는 커뮤니티 옹호자들, 컨설턴트, 가족 및 학생들과 협력하여, 교육자들과 가족, 학생들이 장애학생과 장애 전반에 관하여 대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Say This, Not This)”는 IEP학생 및 이들이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지침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언어 이니셔티브(Language Initiative)로 알려진 본 지침의 목표는 특수교육 관련 용어집을 집약하고 홍보하여 공평, 독립 및 소속감을 진흥함으로써 관계자들이 정확한 언어를 확립하여 그들이 교육하는 학생들을 존중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용어집은 학생과 직원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될 것이며, 전환적 평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습 및 규범적 언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 위원들은 언어 이니셔티브 계획을 검토하고 이것이 최종화 된 후 캠페인 시행 및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천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언어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및 잠재적 영향이 내외부 관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 이 캠페인은 학생 중심으로 펼쳐져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 부모, 교육자 및 기타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 교사 연수 및 학교에 게시하는 포스터에도 언어 이니셔티브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 용어집은 가정 및 커뮤니티가 뉴욕시공립학교와 의사소통을 할 때 최초의 터치포인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터치포인트란 패밀리 웰컴 센터 및 뉴욕시공립학교 웹페이지 등을 말합니다.
- 언어 이니셔티브 광고 및 자료는 여러 플랫폼(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가정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및 인쇄 커뮤니케이션, 대중교통 광고 캠페인, 빌보드 및 포스터 등)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캠페인은 여러 언어로 시행되고 여러 미디어(글, 시각 자료, 오디오 및 동영상)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 언어 이니셔티브는 지속적이고 진화해야 하며, 적절한 언어는 상황과 개인의 정체성에 의존하며, 시간에 따라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연사를 초청하여 가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각 가정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다른 가정의 경험이 무엇보다 소중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겪어낸 일들이니까요 ... [뉴욕시공립학교는] 경험많은 학부모와 새로운 학부모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버디 시스템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자문위원**

**모든 학생과 가족을 활발한 참여자로서 최우선시 할 것**

자문위원들과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명확하고 투명한 감점 중심의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여, 학생과 가족을 위한 따뜻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투명한 구조, 또래 지원 및 일원화된 정보와 도구 제공을 통해 가족과 학생은 긍정적인 교육 결과, 기회 및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배정 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개선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 일반교육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75학군 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IEP학생 관련 정보를 모든 뉴욕시 커뮤니케이션에 포함. 예를 들어, 서머 프로그램에 관한 이메일에 일반교육 (1-32학군) 외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없음.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 서로 다른 학생 경험을 포용하는 언어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예, “고등 교육”이나 “커리어” 보다는 “고등학교 이후의 삶”이란 표현 사용).

뉴욕시공립학교 공식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리소스의 부족에 실망감을 느끼고 분노한 일부 자문위원들과 포커스 그룹은 정보 부재를 극복하고 그들의 자녀를 옹호하기 위해 의존하는 외부의 정보원과 지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문위원들과 포커스 그룹은 이미 이 시스템을 경험한 다른 가족과의 직접 대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연대와 지원을 위해 의존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뉴욕시공립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IEP 학생의 양육자들이 서로 돕고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문위원들과 포커스 그룹은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정보와 공간을 제공하는 공식 비공식

네트워크, 조직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INCLUDEnyc, Brooklyn Special Kids, Mocha Moms의 각 지부 등이 포함됩니다.

**“Mocha Moms 그룹 내에서 우리는 항상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풍부한 정보가 우리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자녀에게 IEP가 있으면 종종 고립된 기분이 들거든요.”  
-자문위원**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는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 학생들로부터 활발한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정보를 배포할 때 부모 및 양육자들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메일 리스트(예, Brooklyn Special Kids, Mocha Moms)에 동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및 학생 관점을 수용하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메커니즘 강화**

자문위원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가족 및 학생)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누구나 환영하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프로그램 개발, 신규 이니셔티브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가족과 학생의 관점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더욱 더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천하였습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이번 특수교육 자문 위원회 활동과 같은 커뮤니티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학생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 및 그 가족들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혜택을 볼 것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개선 노력에는 모든 학생—IEP 유무를 막론하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장애, 프로그램 및 통합에 관해 더욱 잘 알면 알수록 서로를 더욱 잘 지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는 자신을 더욱 잘 옹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각 가정에 더욱 많은 정보 제공**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는 학생과 가족들에게는 뉴욕시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장애 서비스, 지원 및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포커스 그룹은 다양한 개인 경험과 좌절을 공유하면서, 뉴욕시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규정, 절차 및 기타 경로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고 종합적이며,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이러한 정보의 파악과 접근의 용이성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뉴욕시공립학교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각 가정에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1)서비스의 연속성에 관한 가족 교육을 개선, (2) 특수 프로그램 홍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연속성에 관한 가족 교육 제공**

뉴욕시공립학교에서 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과 포커스 그룹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알기 어려우며,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명확하고 유용한 채널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리소스로는 뉴욕시공립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자녀를 위한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가족들과 양육자들이 주로 연락하는 곳은 학교 교사들, 학교장,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기타 교직원인 대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마다 제공되는 정보가 일관되지 않았다고 자문위원 및 포커스 그룹은 보고합니다. 자문위원과 포커스 그룹은 학교 교직원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경우, 가족들이 스스로 알아서 시스템을 공부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교사 및 직원들, 특히 특수교육 실무자가 아닌 직원들에게도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 저는 모든 경로들도 알지 못해요 ...단지 사람들이 수근대는 학교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 정도죠 ... 공식 목록도 없어요 ... [저는 특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그냥 입소문으로 알게 되었어요.”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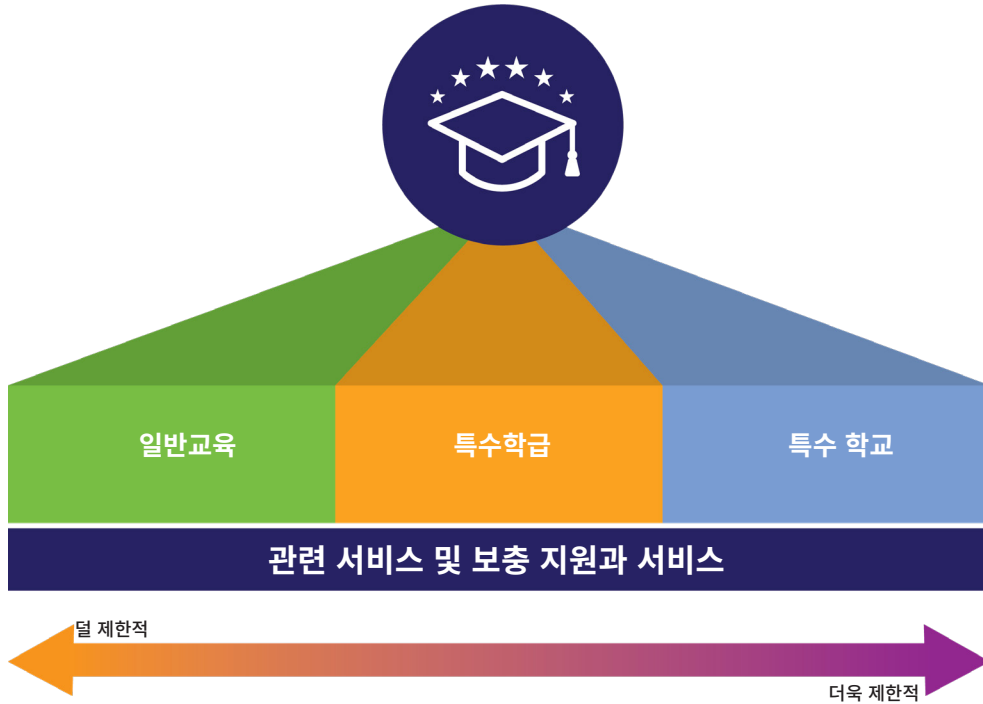
하부위원회와 포커스 그룹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일원화되고 명확히 전달되는 종합 정보의 부재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이 직접 나서서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스스로 시스템을 알아보고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IEP 학생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해 아예 무지한 채로 남아 자녀를 지원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

**“현재 특수교육 시스템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법률 관련 문서를 쉽게 이해하지만, 특수교육 정보는 저 같은 사람조차 접근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죠.”**

**-자문위원**

정보 제공, 접근 및 시스템 탐구 도구에 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참여 및 역량강화 하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이해하기 쉬운 종합적 정보를 가정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채널에 걸쳐 일관적 방식으로 배포되어, 모든 장애학생 부모와 양육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축약된 단어나 “관련 서비스”와 같은 교육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가능하면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뉴욕시공립학교는 서비스의 연속성에 관한 정보를 여러 가지 포맷으로 제공하고, 여기에는 각기 다른 학교 입학 포인트 및 다른 학년이나 연령에서 전환되는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용어를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도 포함해야 합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교사와 교직원들이 특수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에 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각 가정에서 주로 연락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IEP 학생의 가족들이 서로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하여 각 가정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합니다.



### 특수 프로그램 홍보

뉴욕시공립학교는 장애학생 대상 다수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지원을 갖추고 있으나, 자문위원들과 포커스 그룹이 지적하였듯이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각 가정에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욕시공립학교는 매우 간단한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천하였습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특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더욱 잘 공유하여 양육자들과 교직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보는 유니버설 pre-K나 영재 프로그램 등의 여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만큼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 뉴욕시공립학교는 75학군 및 특수 프로그램(Nest의 Academics, Career, and Essential Skills 프로그램 등)의 등록과 배정에 관한 정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1-32 및 79학군 프로그램, 다언어 프로그램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록 및 배정에 관한 정보만큼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 인터뷰 하이라이트



**“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그의 팀은] 해당 빌딩에 있는 모든 교장들을 초청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모든 교사들로부터 수준 높은 학습지도의 증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며, 해당 빌딩 내 모든 학교장들이 모든 학생들의 배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학생들이 아니라 그 빌딩, 또는 그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 말입니다.”**

**– Barbara Tremblay**

학교장, P721K  
통합 및 독립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 결론



# 결론

이번 전체 자문 위원회 및 하부위원회 회의, 오피스 시간, 개별 전화 통화를 통하여, 자문위원들은 한 가지 중심 원칙으로 좁혀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 위원회 및 기타 관계자들이 제시한 피드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변화를 주고, 보다 짜임새있고 구조적인 접근법을 택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투명하고 엄격한 계획 시행 감독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뉴욕시공립학교는 자문위원 및 이번 특수교육 개편의 영향을 받게 되거나 책임을 지게 될 기타 관계자들과 대화를 지속하여, 누구나 변화의 필요 및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혜택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정책 결정 및 감독 구조의 통합을 보장하여 정책 변화가 시스템 관리의 모든 레벨에 스며들도록 하고, 학교차원에서 정책 변화가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자문은 설문 피드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 및 구조는 이번 추천사항과 발맞추어 가야 합니다.”

가정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선은 반드시 뉴욕시공립학교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개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자문위원들이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구할 때 겪었던 어려움에 관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교직원들(일반적으로 가족들이 정보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접촉하는)이 때때로 전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연속성에 관하여, 혹은 이러한 연속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지원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문위원들은 교육청 내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장애 학생 통합이 시스템 전체에 걸쳐 표현되어서, IEP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앙부서까지 모든 레벨에서 공립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반 장애인 차별주의적 인식을 고취하고, 장애학생들의 강점을 부각시키며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환영받고, 그들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인터뷰 하이라이트



**“고유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은 신뢰로 이어지죠. 시에서는 계속해서 자녀가 75 학군에 다니는 가정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 중 상당수는 표준화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규범의 테두리를 넘어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 뉴욕시공립학교는 75학군 학생, 그리고 [ELL 로도 분류된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초점을 둔, 의미 있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 Lori Podvesker**

장애 및 교육 정책 디렉터, INCLUDEnyc  
75학군 학부모  
역량강화 및 참여 하부위원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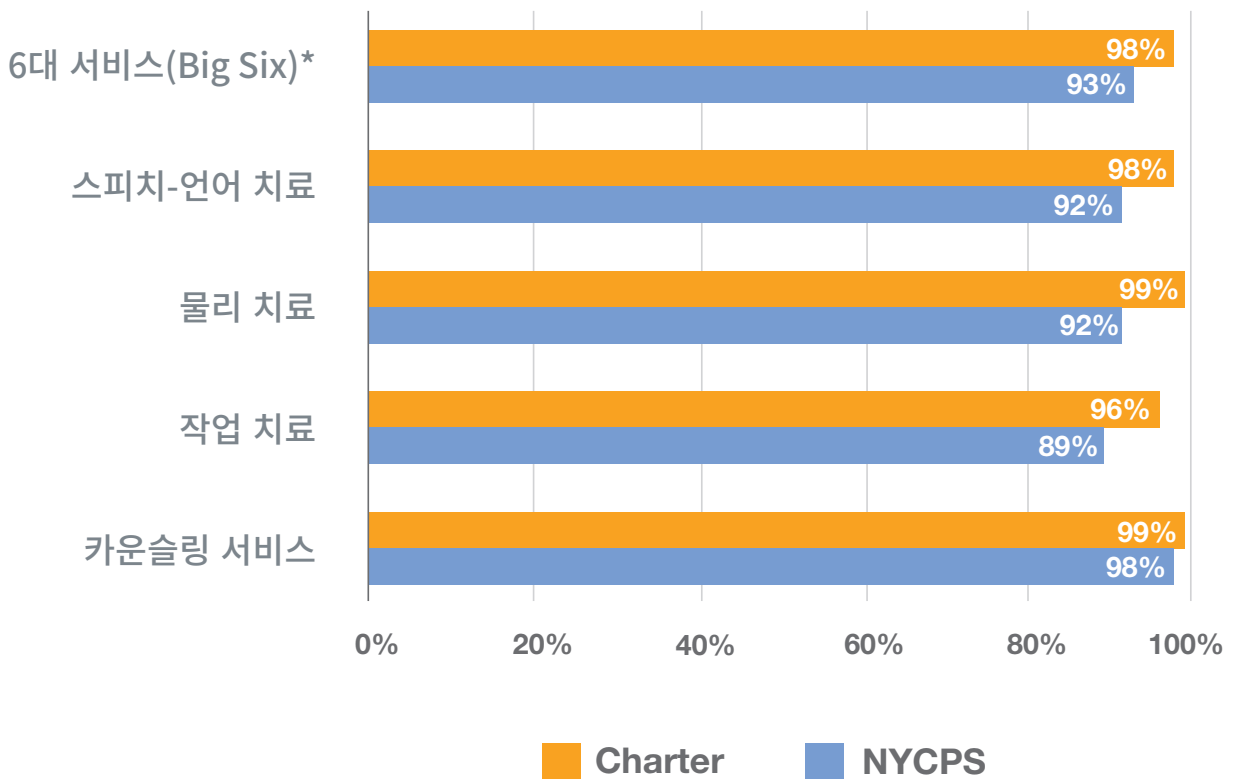
# 부록



# 부록

## 부록 1: “별도 장소”- 관련 서비스 IEP 추천사항

거의 예외없이 학생들은 관련 서비스를 본인의 자연스런 학습환경 밖에서 또래들과는 분리되어 받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뉴욕시공립학교 및 차터스쿨에서는 모든 관련서비스의 90퍼센트 이상이 교실 밖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6대 서비스(The Big Six)가 가장 많이 추천되는 관련서비스입니다: 언어치료, 카운슬링, 작업치료, 물리치료, 청각 서비스 및 시각 서비스.

## 부록 2: 관련 서비스 연구 참고서적

- Cahill, S. M., & Beisbeir, S. (2020). 5–21세 아동 및 청소년 작업치료 시행 지침(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guidelines for children and youth ages 5–21 years). 미국 작업치료 저널(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4), 7404397010.
- Kingsley, K., & Mailloux, Z. (2013). 조기 중재 서비스에서 각기 다른 서비스 제공 모델의 효율성 증거(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ervice delivery models in early intervention services). 미국 작업치료 저널(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7(4), 431-436.
- Martino E. M., & Lape J. E. (2021). 유아원 학급에서의 작업 치료-유치원 준비를 위한 소근육 및 시각 운동 기술 함양(Occupational therapy in the preschool classroom—promoting fine motor and visual motor skills for kindergarten readiness). 작업치료 저널, 학교 & 조기 중재(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 Early Intervention), 14(2), 134-152.
- Sayers, B. R. (2008). 학교 환경에서의 협력: 주제에 관한 비평적 평가(Collaboration in school settings: a critical appraisal of the topic). 작업치료 저널, 학교 & 조기 중재(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 Early Intervention) 1, 170-179.
- Throneberg, R. N., Calvert, L. K., Sturm, J. J., Paramboukas, A. A., & Paul, P. J. (2000). 서비스 제공 모델이 학교 환경에서 커리큘럼 어휘 능력에 끼치는 영향 비교(A comparison of service delivery models effects on curricular vocabulary skills in the school setting). 가정 리서치 및 창의력 액티비티(Family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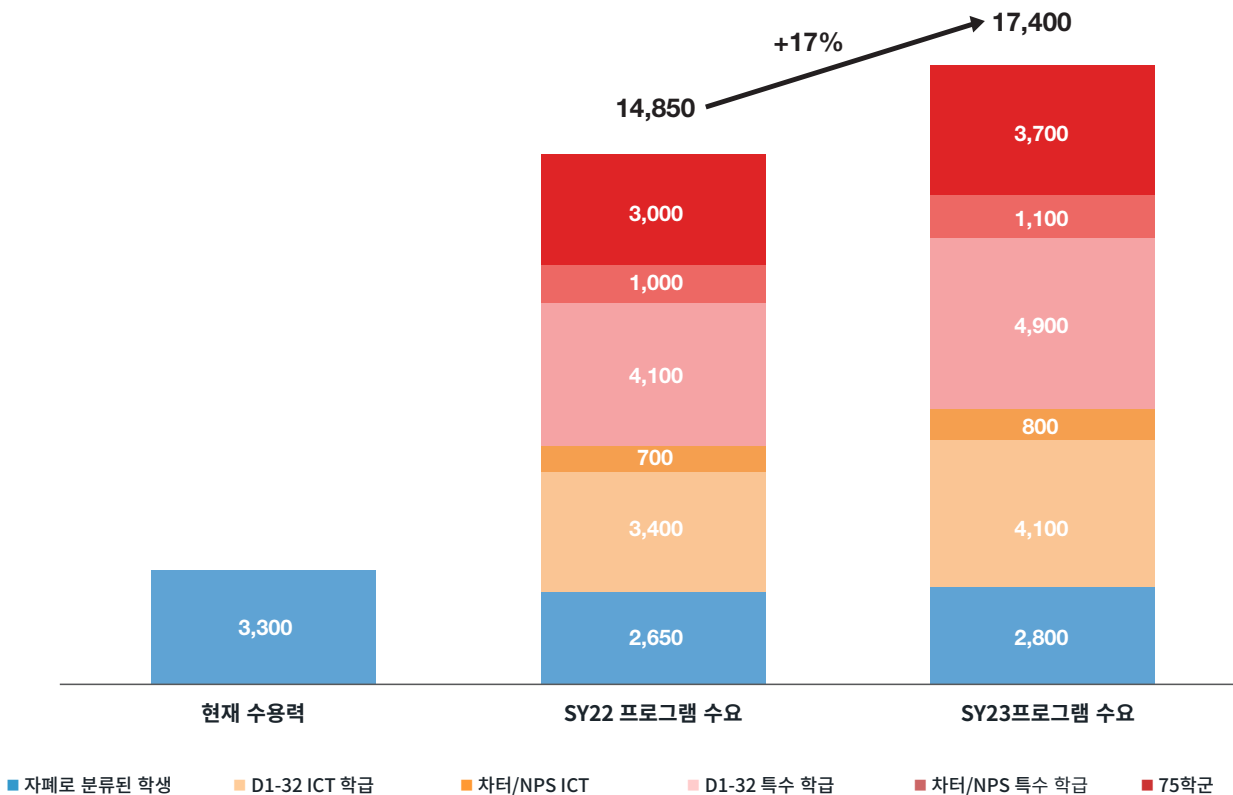
### 부록 3: 특수 자폐 프로그램

특수 자폐 프로그램		
Nest	Horizon	AI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소된 규모의 통합 협력 수업(Inclusive Co-teaching: ICT) 학급 (학생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규모 확대)</li> <li>· 서비스전 연수를 받은 특수교사 및 일반 교사</li> <li>· 일반 커리큘럼으로 배우고 있으며, 학업면에서 자기학년 레벨이거나 그 이상이고 지적능력이 평균 또는 그 이상</li> <li>· 사회성 개발 중재(Social development intervention: SDI)는 사회적 기능, 언어치료가 이끄는 소규모 그룹에서 사회적, 실용적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함</li> <li>· NYU Nest Support Project에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학급: 8:1:1 (자폐로 분류된 학생 8명, 특수교사 1명, 프로그램 보조교사 1명)</li> <li>· Horizon 학급은 같은 학년 일반교육 및 ICT 학급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학년 커리큘럼을 활용</li> <li>· 학급 교사와 프로그램 보조교사 모두 서비스전 연수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연수를 받음</li> <li>· Horizon 사회 커리큘럼</li> <li>· 중앙에서 파견된 코치가 매주 Horizon 교사와 직원들을 지원</li> <li>· RethinkEd는 Horizon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온라인 자료입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K-2학년 조기 아동교육 프로그램</li> <li>· 자폐로 분류된 아동 6명을 교육하는 특수 학급</li> <li>·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는 서비스전 연수 및 지속적인 훈련을 받습니다</li> <li>· 학급에서 풀타임 언어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사는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또래 활동을 증가시킬 유기적 기회를 적극 활용함</li> <li>· 학급 스태프를 훈련시키고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개인 또는 소규모로 직접 수업도 진행하는 자격증 보유 행동 분석가</li> <li>· AIMS에 초점을 두고, 응용 행동 분석, 기초 언어 및 학습 스킬 평가 및 언어 행동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 커뮤니케이션, 일상 활동, 의미 있는 예비 학업 능력 발달 및 기능을 키울 수 있게 지원</li> <li>· RethinkEd는 AIMS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온라인 자료로서 그 내용은 ABLLS 및 언어행동에 맞춰져 있습니다</li> </ul>

### 부록 4: 자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들

내부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뉴욕시공립학교에서 앞으로 교육해야 할 자폐 학생의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면 시스템 능력을 초과할 것이 예상됩니다. 교육 분류상 자폐로 분류된 모든 학생들의 수를 반영한 것으로서, ICT나 특수학급 특수교육 프로그램 추천을 받은 학생들 및 표준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을 출석현황별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비공립 학교, 차터, 1-32학군, SC 1-32 학군, 75학군 및 자폐 프로그램) 전 학년도와 비교할 때 자폐로 분류된 학생은 17% 증가하였으며, 출석 학교는 이 학생들이 금년도 출석한 곳을 말합니다.

Nest/Horizon 프로그램 수요 및 수용력



## 부록 5: 분쟁 해결 경로

분쟁 해결 경로		
경로	장점	한계
학군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설정, 토론 방향 제시, 학부모 질문에 답변, 학부모 우려에 대응, 학교팀 멤버 및 학부모들이 의견일치에 도달하도록 도움, 회의 결과 요약 등, 전반적 회의 진행 역할</li> <li>• 상호존중 및 개방적 의사소통 분위기 조성</li> <li>• 학교에 관하여 잘 알고, IEP가 있는, 그리고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 가능한 학군 자원 및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 학생의 필요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지 평이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의견일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아닌, 결정권자로 학부모들에게 인식되어야 함</li> <li>• 학교나 학군 자원 또는 프로그램 기대치로부터 한계를 느낄 수 있음</li> </ul>
학부모 멤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직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는 비-뉴욕시공립학교 IEP팀 멤버</li> <li>• 가족이 IEP팀의 결정을 이해하고 이것을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함</li> <li>• 학교팀에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개인적 이득이나 기타 관심사 없이 학부모 입장에서 추천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어야 함</li> <li>•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및 절차, 규정 등에 훈련받고 자격을 갖춰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됨</li> <li>• 이 멤버가 이전에 IEP팀과 일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경험에 의한 편견을 가질 수 있음</li> <li>•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이 아님</li> <li>• 여러 차례 회의에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음</li> <li>• 무급(예, 교통비 비지급)</li> <li>• 학부모 멤버는 학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될 수 있음</li> </ul>

분쟁 해결 경로		
경로	장점	한계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뉴욕시공립학교가 견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발적인 비밀 절차</li> <li>• 중재자는 중립적이며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쪽 편을 들지 않음</li> <li>• 뉴욕시공립학교 직원과 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이해를 개선할 기회</li> <li>• 양측 관심사를 제시하고 새로운 옵션과 대안을 알아볼 수 있는 절차에 참여합니다.</li> <li>• 타협점에 이르면, 이 때 합의한 동의사항은 양쪽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은 사립학교 등록금이나 변호사비 지급 등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는 뉴욕시에서 공정절차 불만제기를 가장 많이 하는 측에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학부모 변호사들은 자기 클라이언트들이 중재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li> <li>• 일반적으로 IEP 회의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후 이루어짐</li> <li>• 유연성과 타협의지 필요</li> <li>• 상호 이해 및 타협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 필요</li> </ul>
IEP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가정 간의 관계 개선</li> <li>• IEP 회의 중 커뮤니케이션과 이해를 개선하여 의견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li> <li>•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IEP 팀 멤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IEP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게 함.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안전에 집중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됨</li> <li>• 학부모와 뉴욕시공립학교 직원이 새로운 옵션을 알아보는 것을 장려</li> <li>• 진행자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음</li> <li>• 부모와 뉴욕시공립학교 모두에게 무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중재는 IEP팀 멤버들이 선의로서 IEP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탐구할 의사가 있을 때에만 의견불일치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li> <li>• NYSED IEP 중재진행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온라인 회의 또는 대규모 진행은 불가능</li> </ul>



분쟁 해결 경로		
경로	장점	한계
특수교육 인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 이메일 주소로서, 가정, 옹호자 및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곳</li> <li>• 분쟁 확대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접근 용이한 플랫폼</li> <li>• 평균 답장시간은 2 업무일 이내</li> <li>• 중앙 특수교육팀에서 질문 상세 검토</li> <li>• 다음 단계 해야할 일, 서비스, 프로그램 및 규정 설명, 또는 복잡한 이슈에 관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답변 발송</li> <li>• 실시간 트렌드 추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요구는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잘 들어줄 수 있음</li> <li>• 문의 쇄도 기간에는 평균보다 답변 기한이 길어짐</li> <li>• 로컬 레벨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반응 조치</li> </ul>

## 권말 주석

- 1 일부 자문위원들은 특정 하부위원회에 배정되지 않고, 몇몇 하부위원회 회의와 전체 자문 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 2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은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임을 기술하고 아동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공식화 하는 문서입니다.
- 3 공정한 심의 요청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차는 장애 학생에게 무료로 적절한 공립 교육 지정, 평가, 배정 또는 배정과 관련해 학부모 또는 학군이 서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뉴욕시공립학교 특수교육 용어집
- 4 Fruchter N., Berne R., Marcus A., Alter M., & Gottlieb J. (1995). 학습에 초점:뉴욕시의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 재조직 보고서(Focus on learning: a report on reorganizing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in New York City). 교육 및 사회 정책 인스티튜트(Institute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y).
- 5 뉴욕시 제 75학군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증 정신지체, 정서장애, 감각 장애 및 다중장애 등의 중증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고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6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연합(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Coalition), 여러 해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다...뉴욕시 공립학교에서의 장애아 통합(Still waiting, after all these years ... inclusion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 (2001), [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still\\_2001.pdf?pt=1](https://www.advocatesforchildren.org/sites/default/files/library/still_2001.pdf?pt=1).
- 7 2000년 6월, 뉴욕시 교육청은 모든 장애 학생들이 LRE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신규 서비스의 연속성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 뉴욕시 교육청, 시작하기: 통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일부로서 특수교육. pdf 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8 <https://infohub.nyced.org/working-with-the-doe/special-education-providers/standard-operating-procedures-manual/special-education-reform>.
- 9 <https://infohub.nyced.org/working-with-the-doe/special-education-providers/standard-operating-procedures-manual/special-education-reform>
- 10 Nest 설명은 부록 4 참고
- 11 DBN, 즉, 학군 보로 번호는 학군 번호, 보로의 글자 코드, 그리고 학교 번호를 조합한 것입니다. 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는 이 학군 보로 번호가 있습니다.
- 12 관련 서비스는 장애 학생이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슬링, 작업치료, 물리치료, 스피치-언어 치료, 방향 및 이동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뉴욕시공립학교 특수교육 용어집.
- 13 부록 1 참고, 거의 예외없이 학생들은 관련 서비스를 본인의 자연스런 학습환경 밖에서 급우들과는 분리되어 받고 있습니다.
- 14 부록 2의 효율적인 관련 서비스 시행에 관한 연구 참고서적을 볼 것.
- 15 추가적으로 약 10,500명으로 집계 되는, 특수 자폐 프로그램에서 더욱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학생수의 세부내역은 부록 5 참고
- 16 자녀가 비공립 학교에 다니는 가정에서 제기한 공정절차 불만제기 숫자는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공립학교 가정의 불만제기 숫자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 17 브롱스 7, 9, 10, 11, 12학군 및 퀸즈 24, 27, 28, 29 학군.
- 18 이러한 분쟁 해결 경로의 장점과 한계에 관한 상세 정보는 부록 5 참고.



